李丙燾 李相佰 黃壽永委員 參席下에 다음 文化財를 評價하였다。

一、家形土器 一點 二、馬形土器 一點 三、鴨形土器 二點 四、金銅製鞍裝金具 一點 五、靑磁象嵌牡丹鳳凰紋大接 一點 六、竹林翎毛草花紋梅甁 一點 七、雲鳳紋大接 八、菊花紋八角接匙 三點 九、菊花紋接匙 一點 一〇、白象嵌靑磁菊花紋接匙 一點 一一、靑銅有蓋鉢 一點。

◎ 石窟庵補修工事竣工

石窟庵補修工事는 그동안 滿一年間의 本工事를 마치고 지난七月一日 現地에서 文敎部長官 文化財委員및 關係官參席下에 盛大한 竣工式이 擧行되었다。

石窟庵補修工事에 對한 談話文

文化財委員會 委員長 金 庠 基

石窟庵 補修工事竣工後 紙上에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바 現實과는 상당한 距離가 있으므로 數年동안 工事를 지켜왔고 더욱이 竣工式에 參席하여 現況을 보고온 本委員會로서 工事의 計劃과 意圖를 밝히는 同時 物議에 對한 要點을 解明하고자 한다。

一、石窟庵補修工事의 最大目的은 窟內諸佛像의 保存에 있다。

二、諸佛像의 保存에는 窟內에서 發生하는 水分處理가 가장 重要하다。

三、窟內에서 發生하는 水分은 三種類가 있다。

1、自然水漏水……물이 窟內에 浸透할때 日帝時 構築하였던 콩크리트層을 通過하여 生石灰水로 變하여서 內部諸佛像에 附着함으로 甚한 浸蝕을 加하여 왔다。

2、地下水……水位가 窟地盤보다 一尺五寸낮고 距離가 佛像에서 六—七尺程度임으로 콩크리트層을 通하여 多少의 毛細管現象을 일으켜 生石灰水로 變하여 佛像面을 浸蝕하여 왔다。

3、窟內外 溫度差異로 因한 水滴發生……窟內에는 外部와의 溫度差로 主로 夏期에 窟內溫度의 低下에 따르는 露點의 低下로 水滴이 生기나 이것은 佛像에 큰 支障을 주지 않는다。

對策(工事內容)

1、自然水漏水는 在來「돔」外廓에 四尺以上의 空間을 두고 本窟「돔」과 分離된 二重「돔」을 架設하여 外部로 부터의 漏水를 完全히 防止하였다。

2、地下水는 水位를 可能한限(窟地盤보다 約四尺五寸) 낮추고 距離를 窟에서 멀리 돌려서 排水함으로서 地下水가 窟內地盤으로 浸透하는것을 完全히 防止하였다。

3、窟內外溫度差로 因한 水滴發生……이 水滴發生과 除去에 對하여서는 工事當初 부터 檢討를 進行하여 왔으며 몇가지 方案이 硏究되고 있으므로 今次工事로서 窟內條件이 確定되었음으로 硏究되어 오던 具體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石窟庵通信(十七、完)

鄭 明 鎬

工事再開에 따라 昨年工事中 越冬을 要한 前室 壽光殿 便所의 美匠工事(9/4月—30/4月)와 丹靑(18/5—7/6) 本尊주위 前室과 基壇壽光殿의 磚石 塼갈기(14/4月—17/6月) 前室屋蓋部에 있어서 이미 昨年에 平瓦를 올려 놓은 곳에 나머지 男瓦를 올려 놓았으며 特히 前室의 『켄트리바』와 面하는 뒤의 平瓦는 一段의 平瓦를 깐後 그 위에 三枚포게로 깔았으며 용마루 兩便에는 慶州千軍里 寺址出土 鴟尾와 類似한 鴟尾를 올려 놓았으며 추녀마루에는 合閣마루에서 2/3추녀마루 地點에 感恩寺址와 이곳에서 出土된 圓筒蓋瓦를 놓았다。이것을 놓은 位置는 昨年七月一日에 慶州普門水利地附近에서 出土된 土瓦家屋과 慶州博物館 所藏土瓦屋蓋破片을 參考하였다。鬼面文은 石窟庵發掘址에서 出土된 文樣을 딴것이다(5/5—30/5) 前室의 窓戶로는 引枋과 昌枋間에 飛天文을 板門左右에는 唐草文光窓을 달았으며 左右兩間에는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과 浮石寺 祖師堂의 光窓樣式을 따랐으며 壽光殿의 窓戶는 普通빗살文을 달았다。以上으로서 一次本工